

<흐름을 넘나들다 With and Against the Flow>

2020대구사진비엔날레

2020.9.18. ~ 10.27.

2020대구사진비엔날레는 <흐름을 넘나들다>라는 주제 아래, 현대 사진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특히 사진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관점의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질문을 통해 이미지들의 복잡한 인지 과정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전시될 사진 이미지의 폭은 매우 넓다. 설치작품(installations)부터 완전한 공간적 시나리오 작품(spatial scenarios)까지, 조각이나 회화의 요소를 지닌 작품, 포토그램과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작품부터 동영상 작품과 인 시투(in situ) 작품까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작품부터 하이브리드 이미징 기법까지,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전시는 관객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는 사진이라는 장르가 지니고 있는 예술적 특징을 관객이 사진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정의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사진이라는 장르를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각각의 전시작품들은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한 가닥의 붉은 실처럼 사진 매체에 대한 담론을 펼쳐 나갈 것이다.

현대 예술은 그 생산과 아이디어의 순환, 사람과 문화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주제전 <흐름을 넘나들다>는 현대 사진의 이와 같은 성격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해설을 제시할 것이다.

2006년 시작되어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진 비엔날레 중 하나로 성장한 대구사진비엔날레는 현대 사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대를 망라한 여러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2020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제전은 '패션/뷰티', '음식/요리', '스튜디오/아틀리에', '어반 인테리어'라는 테마들로 구성된다. 이는 일상생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대구와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생각하기에 적합한 테마들이다.

각 테마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틀을 따르는 대신, 예술 전시라는 새로운 맥락에 맞게 배치될 것이다. 또 내부인식과 외부인식이라는 기존의 관념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테마들은 사진에 대한 시대정신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진술 역할을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지금 사회에서 패션, 음식, 기록, 예술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순수예술, 응용예술, 상업예술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20대구사진비엔날레의 전시 작품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 테마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고 혁신적으로 맞물려 있다.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는 이 테마들은 문화적 대화의 능동적인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패션/뷰티'**는 '섬유패션도시'라는 대구의 지역적 특성에서 착안하여 선정한 주제로, 섬유 및 패션 산업의 중심지로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면모를 살펴본다.
- 한국의 음식 문화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음식/요리'**는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조망한다. 케이뷰티, 케이팝, 케이라이프스타일과 마찬가지로 한류의 일부로서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살펴본다.
-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인 아틀리에와 스튜디오는 그 자체가 작품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작가들의 아틀리에와 스튜디오는 여러 사진작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해 왔다. 이 공간들은 작가와 관객에게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스튜디오/아틀리에'**는 창의성의 발현되어 작품으로 탄생하는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흥미로운 테마다.
- **'어반 인테리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진이다. 이 사진들은 보는 그 공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진으로, 과거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매우 명확한 초점으로 찍는 것이 중요한 작품들이다. 도시인들이 건축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반 인테리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테마가 될 것이다.

With and Against the Flow

Daegu Photo Biennale 2020

18. Sept. - 27. October 2020

Under the title "With and Against the Flow", the Daegu Photo Biennale 2020 will present a spectrum of artistic positions that make a relevant contribution to the contemporary photographic discourse and focus on the visual perception altered by numerous media. The DPB 2020 will focus on the role that the image, especially photography, has taken on in our modern world. In view of the diversity of artistic positions, the focus is on exemplary questions, making the exhibition display a complex perceptual trail. From installations, to complete spatial scenarios, from sculptural or painterly components, from the photogram and non-camera photography to moving video images, to in-situ works, from analog and digital to hybrid imaging processes, the most diverse forms of photographic imaging can be found.

Performative and participatory formats complement the dynamic exhibition program in order to reflect on the artistic practice of photography as a genre and to view it beyond the narrow corset of classical definition. The Daegu Biennial's restriction to the genre of photography is a far-reaching opportunity to reflect on images and their productions. Therefore, works run like a red thread through the entire exhibition installation, staging the discourse of photographic mediums themselves.

"With and Against the Flow" can be understood as a commentary on the nature and techniques of contemporary photography. The open motto "With and Against the Flow" is not only relevant to contemporary artistic productions, but also to the circulation of ideas, people and cultures.

The identity of the Daegu Photo Biennial, as one of the largest photo biennials in Asia with a continuous tradition since 2006, will open the view to the new and present unusual positions. The artists have been selected across the generations.

With the individual themes of "Fashion/Beauty", "Food/Food", "Studio/Atelier", "Urban Spaces", the DPB 2020 consciously focuses on our everyday life and includes the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the geographical region.

The DPB 2020 takes these popular themes out of their established structure, places them in the context of an art exhibition and breaks up conventional self-perception and external perception. The themes stand for a social and societal statement and not for an industry with a feeling for the

zeitgeist.

The boundaries between fashion, food, documentary and art photography are blurred and the field of free, applied and commercial art is highly frequented and complex. The selection of artists for the DPB 2020 responds to this.

The seismographically related themes are an active platform for cultural dialogue. Rarely before has there been such significant and innovative collaboration as today.

The regional profile of the city as "Daegu Fashion City" provides the framework for the theme "Fashion/Beauty" and highlights it as an important and lively textile and fashion centre.

Korea is famous for its "food/food" culture and is lavishly staged by countless photographers. For the official K-advertisement, as well as K-Beauty, K-Pop and K-lifestyle are also critically scrutinized.

"Ateliers/studios" have long been considered a separate genre in art history. As individual, mostly non-public places, they are a motif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They play a special role both for artists and for viewers. An insight into the places of transformation of the creative is of highest interest.

"Urban interiors" usually do not open up for viewing. Photographs of these spaces are about looking, looking into and at a social reality. Regardless of the perspective from which one looks, the view is dependent on presence, on existence. It takes place in the now and is not rambling, but focused. In the architecture surrounding people, their way of life is manifested most clearly.